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연준 Waller 이사, “연준 금리 인하 수개월 기다려야”

[경제 인터뷰]

-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By Dr. Paul Sheard

[미국 금융]

- CNBC: 투자자들 인플레이와 이자율 검토하면서 국채 수익률 감소
- WSJ: JP 모건, “고객 소비자 금융 상황 정상이며 안정적”

[뉴욕시]

- Bloomberg: 뉴욕시 임대료 치솟아 아파트의 5%만 근로자가 감당

[물류]

- Bloomberg: 연준, “공급망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다”
- WSJ: 홍해 문제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임료 치솟는다

[인공지능]

- CNBC: EU, 세계 최초로 ‘인공지능 규제’ 최종 승인
- CNBC: 서울 AI 정상회의 - 주요 테크 기업들, 인공지능 안전 국제 협약 체결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 Business: AI 사용법을 배우면 급여 25% 높일 수 있다
- TechCrunch: MS, 코파일럿+ PC 출시 ... 윈도우에 생성형 AI 도입
- NYT: AI가 개인용 컴퓨터의 부활을 주도할 수 있을까?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’s Waller Needs ‘Several More’ Months of Good Inflation to Cut Rates

연준 Waller 이사, “연준 금리 인하 수개월 기다려야”

-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“최근 지표가 물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금리 인하 시작에 수개월이 걸릴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- 그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해 물가 압력이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했다. 그는 또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노동 시장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.
- 한마디로 물가 둔화 현상은 보이지만 연준의 2% 목표로 가는 데는 약간의 진전만 있다는 것이다. 인플레이 보고서는 점수를 준다면 C+를 주겠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경제 인터뷰]**경제 인터뷰: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By Dr. Paul Sheard**

- Dr. Paul Sheard는 미 경제 관련 'The Power of Money'라는 책을 쓴 전 S&P 글로벌 부회장으로서 KOCHAM에 여러 차례 미국 경제 세미나 연사로 초청받았다.
- 책을 소개하는 행사는 5월 30일(금) 6:00 pm에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열린다.
- 아래는 미국과 한국 관련 인터뷰

코리아 소사이티 행사

인터뷰 내용

[미국 금융]**CNBC: Treasury yields pull back as investors weigh inflation, interest rate outlook****투자자들 인플레이와 이자율 검토하면서 국채 수익률 감소**

- 투자자들이 연준 관리들의 발언 이후에 인플레이와 이자 전망에 대해 경로를 고려하는 가운데 오늘 화요일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. 19년물 수익률은 4.202%, 2년물은 4,822%로 거래되고 있다.
- 투자자들은 미 경제 상황, 특히 인플레이에 주시하면서 인플레이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고 있다. 또한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.

CNBC 기사

WSJ: JPMorgan's Consumer Business Is Doing Great. Its Customers Are Just OK.**JP 모건, “고객 소비자 금융 상황 정상이며 안정적”**

- 이 은행은 최근 수백만 명의 새 고객 수백개의 지점을 추가했으며 꾸준한 순이자 수입과 비 이자 수익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.
- 한마디로 소비자 금융 건전성은 일반적으로 정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.
- 특히 저소득 고객의 경우 더 강한 지출 증가세를 보이지만 거래가 줄고 있고 반면에 고소득층은 여행과 고급 소매를 포함해 임의적인 지출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[뉴욕시]**Bloomberg: NYC Rents Are So High That Only 5% Are Affordable for the Average Salary****뉴욕시 임대료 치솟아 아파트의 5%만 근로자가 감당**

- 뉴욕거들은 작년에 평균 급여가 8만9천불보다 작는데 이는 연 소득의 30% 이상을 지출하지 않고 주거비에 월 2천2백15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뉴욕에서 임금은 주택 가격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. Zillow Group Inc.'s StreetEasy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임대료는 8.6% 상승한 3천4백75불을 기록했지만 평균 임금 상승은 1.2% 그쳤다.
- 뉴욕시의 경우 샌프란시스코, 시카고, 보스턴을 합친 것보다 많은 38만47채의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**Bloomberg: Fed Survey Sees a 'Troubling' Stall in Supply-Chain Progress****연준, “공급망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다”**

- 뉴욕연방중앙은행의 5월 설문에 따르면 서비스 기업의 3분의 1과 거의 반수가 되는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 설문에 따르면 2021년 말부터 상당한 회복이 있었지만 많은 기업이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.
- 더욱이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급망을 완화하는데 진전이 없어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다.

BL 기사

WSJ: Ship Freight Rates Soar as Red Sea Diversions Become a Norm**홍해 문제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임료 치솟는다**

- 홍해 사태로 선박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지난 수주간 동안 컨테이너 운임료가 30% 정도 상승했고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. 소비로 바쁜

올여름 시즌 전에 수입업체들이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.

- 현재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홍해 지역 대형 선박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. 선주들과 브로커들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 10대 중 9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수에즈 운하 진입 지점인 홍해에서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CNBC: World's first major law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ets final EU green light EU, 세계 최초로 '인공지능 규제' 최종 승인

- 전 세계 기관들이 인공지능 규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, 화요일에 EU 회원국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에 합의했다.
- EU 이사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도입하는 AI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.
- AI 법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기반으로 접근하여, 기술의 응용 분야를 사회에 미치는 위협에 따라 분류했다.
-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“허용할 수 없는” AI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. 허용되지 않는 AI 활용 예로는 데이터 집계 및 분석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는 사회점수 시스템, 이른바 ‘소셜 스코어링(social scoring)’ 시스템이 포함된다.

CNBC 기사

CNBC: Tech giants pledge AI safety commitments — including a ‘kill switch’ if they can’t mitigate risks 서울 AI 정상회의 - 주요 테크 기업들, 인공지능 안전 국제 협약 체결

-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오픈 AI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화요일 서울 AI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국제 협약에 합의했다.
- 이 협약을 통해 미국, 중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, 한국, 아랍에미리트 등 각국의 기업들은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된다.
- 구체적으로, AI 모델 제조업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오용될 위험을 조사하는 등 프론티어 모델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예정이다.
- 이 안전 프레임 워크에는 ‘용인할 수 없는’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의 종류를 정의하는 ‘레드 라인(red lines)’이 포함된다. 만약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의

완화할 수 없는 경우, AI 모델 개발을 중단하는 '킬 스위치(kill switch)'를 시행해야 한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N Business: Learning how to use AI could boost your pay by 25%, study finds

AI 사용법을 배우면 급여 25% 높일 수 있다

- 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,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그렇지 않은 직업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.
- 컨설팅 업체 PwC는 작년에 게시된 앱 프로그래머, 변호사,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구인 광고를 연구했다. 그 결과, 미국에서 AI 관련 직무의 임금은 같은 분야의 AI 직무보다 평균 25%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영국에서는 14%, 캐나다에서는 11%의 임금 프리미엄이 있었다.
- 특히 특정 직업군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. AI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변호사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기존 종사자보다 49%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, 금융 분석가는 33%의 임금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CNN Business 기사

TechCrunch: Microsoft wants to make Windows an AI operating system, launches Copilot+ PCsMS, 코파일럿+ PC 출시 ... 윈도우에 생성형 AI 도입

-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가 탑재된 새로운 PC를 발표했다. 이번 주 연례 개발자 회의 '빌드(Build)'를 하루 앞두고 열린 컨퍼런스에서 '코파일럿+(Copilot+) PC'라고 명명한 생성형 AI 기반의 새로운 PC 라인업과 기능들을 공개했다.
- Copilot+ P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Windows 하드웨어로, 모든 제품에는 'Recall'과 같은 AI 환경을 구동하는 전용 칩인 NPU가 포함되어 있다.
- Copilot은 가까운 시일 내에 Windows 11환경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며, 회사는 새로운 Microsoft Surface 디바이스 출시도 앞두고 있다.

TechCrunch 기사

NYT: Can Artificial Intelligence Make the PC Cool Again?

AI가 개인용 컴퓨터의 부활을 주도할 수 있을까?

- 업계 분석가들은 '인공지능 PC'가 개인용 컴퓨터의 중요성이 지난 20년 동안 감소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.

- 그러나 인공지능에도 한계가 있다. Chat GPT와 같은 AI 도구들은 고가의 정교한 칩으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된다. 최첨단 챗봇이라도 요청을 받은 후 응답을 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.
-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시간 지연을 없애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직접 AI 시스템을 탑재하려고 한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의 AI 시스템 구현을 위해, 계속해서 시스템의 크기를 축소해 왔다.
- 마이크로소프트 CEO Satya Nadella는 “우리는 컴퓨터가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”고 말했다.
- 이처럼 인공지능 PC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를 끌어낼 만한 매력적인 제품과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능력에 달려있다.

NYT 기사

美 경제전문가들 "연준 올해 금리 2회 인하·인플레 2.6% 예상"

"금리인하 기대감 약해지며 미 국채금리는 3일째 상승"

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인플레이션은 연 2.6%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.

미국 유명 경제학자들이 속해있는 전미실물경제협회(NABE)가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회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0.5%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. 연준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0.25%포인트씩 조정하므로 올해 2번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